

포스트모더니즘과 地理學

—地理學의 解體인가 再構成인가—

李 相 一*

I. 序 論

정확히 10년전 실증주의 지리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초로 재(re-)라는 제목이 지리학에 쓰이기 시작한 이후,¹⁾ 최근까지 지리학의 서적엔 재(re-), 신(new-)과 같은 접두어가 유행처럼 널리 쓰여왔다. 이것은 지리학의 방법론을 새로이 정초해보고자 한 수많은 노력들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지리학자들이 해결하고자 한 것의 핵심은 여러가지 접근법, Johnston의 도식에 따르자면²⁾ 실증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의 세가지 접근법이 화해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실재론(realism) 철학이 제안되었으며,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것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학자들의 노력이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지리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 속에 휩쓸려 버렸다. Bell의 지적처럼, “한때 ‘넘어서(beyond)’라는 말이 거대한 문학적 수식어로 사용되었다.……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쓸대로 다 써버렸고 그 결과 오늘날 ‘넘어서’ 대신 문학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뉘앙스를 갖고 있는 ‘포스트적’

이라는 수식어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Harvey의 지적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경쟁하는 견해들과 정치 세력들 간의 전투장이 되었다”⁴⁾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여한다는 것은, 심지어 객관적인 거리를 둔 개관 또는 적대적인 부정적 비판의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의 일부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⁵⁾

포스트모더니즘이 인문사회과학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여년 전 부터이지만 이것이 서구 지리학계에 도입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이며 그 이후로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논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재는 그 열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철학적 담론이 가지고 있는 유행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논쟁하는 단계가 일단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학계 전반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서구 지리학계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시작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80년대 말 이후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가장 유명한 소

*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地理教育科 助教

- 1) M. Billinge, D. Gregory and R. Martin, eds., 1984, *Recollections of Revolution; Geography as Spatial Science*, London: Macmillan.
- 2) R. J. Johnston, 1983,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 3) D. Bel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p.53; I. Hassan, 1987,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Columbus: Ohio University Press; 이충무 옮김, 199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정립을 위하여,”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문학파지성사, p.59-60에서 재인용.
- 4) D. Harvey,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asil Blackwell, p.39.
- 5) S. Conner, 1989, *Postmodern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y of the Contemporary*, Oxford: Blackwell; 김성곤·정정호 옮김, 1993, 「포스트모던 문화: 현대이론서설」, 한신문화사, p.9.

프트웨어에 대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만큼 포스트모던적 담론의 홍수속에 있다. 인문사회과학계의 여러분야, 즉 문학, 사회학, 정치학, 미학 뿐만 아니라, 건축학,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이 논의되었지만 지리학에서의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물론 또다른 의미에서의 예외주의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논문을 기획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타 분야의 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트모던 지리학을 다루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 중요한 사유의 흐름에 최소한 동참해야 한다는 점이다. 철학적 혹은 방법론적 논의가 우리 지리학계에서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은 단순히 지리학의 논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학문을 갱신시키는데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도입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평가를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리학 자체의 위상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오도되고 있는 점을 교정함으로써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Graham 등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과학 전반 뿐만 아니라 대륙 철학(특히 프랑스 철학), 문이론, 건축학, 미학, 그리고 시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복잡한 포스트모던적 담론 경관을 정돈해 보아야한다. 문제의 핵심은, 포스트모던이라는 표제를 단 많은 논의 중 무엇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 용어를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 혹은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로의 경제적인 이행과정에 기인한 상부구조적인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첨단 기술과 정보산업 사회로의 전이라는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테제 속에서 찾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건축이나 영화를 비롯한 예술 양식의 특징적인 흐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가진 일군의 인간형의 탄생과 그들이 생산해 내는 문화형태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단의 프랑스 사회사상가들이 보여주는 신니체주의적 사상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 논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사유 형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식론과 존재론적 '측면'을 갖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논자는 이것을 모더니즘 뒤에 오는 그 무엇이거나 모더니즘과 대립되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철학적 흐름을 경제적, 기술적 현상이나 문화적 현상에 의해 잉태된 것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결정론적 시각도 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티, 포스트구조주의가 각각 포스트모더니즘과 맺고 있는 관련방식을 명백히 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특성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과 지리학이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즉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지리학자들의 논쟁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면,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지리학을 재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반포스트모던 지리학자들은 전자의 눈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며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반대한다. 반대로 포스트모던 지리학을 찬성하는 지리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

6) E. Graham, J. E. Doherty and M. Malek, 1992, "The context and language of postmodernism," in J. E. Doherty, E. Graham and M. Malek, eds., *Postmodernism and Social Science*, London: Macmillan, p.2.

한다.⁷⁾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부류는 모두 모더니스트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리학에 도입한다는 것은 해체와 재구성 사이에서 끊임 없는 긴장을 유지하려는 것이지 지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거나⁸⁾, 긴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3의 창조를 위해 재구성의 틀 속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리학을 하는 방식, 즉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한 급진적인 질문이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학문을 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던지는 급진적인 질문들은, 그러한 질문에 지금과 같은 열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게한 시대적 상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더니즘과 시기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사의 어떤 시대에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지성사 전반을 향한 궁극적인 회의들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지리학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며, 모던 지리학을 해체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지리학 방법론을 옹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한다. 지리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리학에서의 수용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포스트모던적 공간개념을 상정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일 포스트모더니즘이 인식론에서 뿐만 아니라 존재론에서도 함의를 가진다면, 공간 개념 그 자체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1. 포스트모더니즘의 意味(signification)

Hutcheon은 “최근에 유행하는 문화 이론과 예술에 관한 글을 통해 사용되는 모든 용어 중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은 가장 과대 정의되거나 혹은 과소 정의되는 용어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⁹⁾ Gregory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건축학과 문예이론에 그 기원을 둔 이종적(heterogeneous) 운동에 대한 축약어”이다.¹⁰⁾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개념규정은 너무나 과소하고 촛점이 없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은 토인비로 알려져 있으나¹¹⁾ 대중적인 사용은 Howe(1959)와 Levin(1960)에 의한 것이었고, 그 뒤를 이어 Fiedler(1965)와 Hassan(1970)과 같은 문학비평가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가 처음에는 건축부문에 서 그 다음으로 무용, 연극, 회화, 영화 그리고 음악부문을 두루 포용하면서 아주 널리 사

- 7) Dear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그는 지리학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함으로써 사회과학의 중심학으로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 Dear, 1988, “The postmodern challenge; reconstructing human geography,” *Transaction,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13, No.3, pp.262-274.
- 8) 이렇게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보는 것은 해체(deconstruction)를 파괴나 분해라고 하는 ‘건축학적’ 혹은 ‘해부학적’ 메타포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해체는 축조와 붕괴사이의 머뭇거림이며, 그 사이를 향한 영원한 개입이다.
- 9) L. Hutcheon, 1988, *A Poetics of Postmodernism; History, Theory, Fiction*, London: Routledge, Chp. 1: 김명옥 옮김, 1990, “포스트모던 시학,” 김옥동 편, 앞의 책, p.150.
- 10) D. Gregory, 1989, “Areal differentiation and post-modern human geography,” In D. Gregory and R. Walford,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London: Macmillan, p.67.
- 11) Hassan에 따르면, 이미 토인비 이전에 페드리코 드 오니스가 1934년 발행된 「스페인 및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 1882-1932」이라는 책속에서 ‘포스트모테리니시모’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1942년 더들리 피츠가 자신이 편집한 「현대 라틴 아메리카 시선집」속에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사용했다고 한다. 토인비의 경우는, 1947년에 D.C. 소모벨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요약하여 출판했을 때 제1권에서 사용한 것이다. 소모벨이 굳이 토인비의 저서 속에서 그 말을 사용한 것은 토인비가 서구 문명에 있어 대략 1875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가리키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말을 사용했었기 때문이다. Hassan, *op. cit.*, pp.56-57.

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기와 중엽에 접어들면서였다. 1970년대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미국으로부터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를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다. 이 전파는 논쟁을 급진화시킨 Lyotard와 Habermas간의 대결을 잉태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예술에서의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논쟁과 사회이론에서의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 논쟁이 서구 사회의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¹²⁾ 그러나 건축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용은 보다 명백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를 보여준다. Jencks는 모던 건축의 상징적인 몰락의 시기를 1972년 7월 15일 오후 3시 32분으로 기록한다. 그 시간에 세인트 루이스의 프뤼트-이고우 주택지역의 여러 슬라브 구역들이(1950년대에 미노루 야마사키에 의해 건축된 것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었고 그 붕괴 장면이 저녁 뉴스에 극적으로 방영되었다.¹³⁾ 이것으로 능률과 기능이라는 모더니스트적 이상향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문예학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특히 사회과학에서 논쟁적인 것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연히 Habermas와 Lyotard의 논쟁에 의한 것이다.¹⁴⁾ 이후에는 여기에 Rorty가 개입

함으로써 세사람 간의 싸움으로 번진다.¹⁵⁾ Habermas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신보수주의자라고 칭하면서, “프리모더니티가 가미된 반모더니티의 개념들이 대안적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⁶⁾ Lyotard는 “과학은 자기 고유한 위치를 넘어 철학이라고 불리는 정당화 담론으로 나아간다. 이 메타 담론들이 정신의 변증법, 의미의 해석학, 사유 혹은 노동하는 주체의 해방, 부의 발전과 같은 거대이야기에 도움을 호소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것과 관련된 학문을 ‘모던적’이라 부른다.”라고 주장하면서 ‘포스트모던적’이라는 것을 메타이야기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한다.¹⁷⁾ 그러나 Habermas는 ‘정의’, 혹은 ‘교화’를 명분으로 삼고, 합리성의 논리(단순한 상황논리 보다는 ‘최선’의 논리)를 고수한다. Lyotard에게는 언어는 모순성을 지닌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담론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Habermas에게는 의미는 대체로 의미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는 담론의 목표이다.¹⁸⁾ Habermas가 Lyotard를 신보수주의자라고 부른 것처럼 Portoghesi는 거꾸로 Habermas를 신보수주의

-
- 12) A. Huysen, 1984, “Mapping postmodernism,” *New German Critique*, Vol.33; 정정호 옮김, 1989, “포스트모더니즘의 위상정립을 위해,” 정정호·강내회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터, p.273.
- 13) *Ibid.*, p.277.
- 14) 논쟁의 발단은 Habermas가 1980년 프랑크푸르트가 주는 Adorno상을 받으면서 행한 기념 강연인 “모더니티: 미완의 기획”이었고, 이 논의는 「현대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된다. 이 저서는 이성 중심주의와 현대성의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인 푸코, 데리다, 카스토리아디스, 바타이유등에 대한 전면 공격서인데, Habermas의 관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극적인 위치에 서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을 논쟁적 형태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바로 Lyotard의 「포스트모던적 조건」인 것이다. 윤평중, 1992,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서광사, pp.98-99; 다음의 글들도 참고할 수 있다. 한정선·A. 호이어, 1991, 「현대와 후기현대의 철학적 논쟁」, 서광사, 2장, pp.53-98; 서규환, 1991, 「리오타르와 하버마스의 논쟁에 대하여」, 정정호·강내회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터, pp.121-168.
- 15) R. Rorty, 1985, “Habermas and Lyotard on postmodernity,” in R. J. Bernstein, ed., *Habermas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pp.161-176.
- 16) J. Habermas, 1983, “Modernity: an incompleated project,” in H. Foster, ed., *Postmodern Culture*, London: Pluto Press; 홍유미 옮김, 1990,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김옥동 편, 앞의 책, p.298.
- 17) J-F. Lyotard, 1979, *La Condition Postmoderne*, Minuit; 이현복 옮김,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 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의 위상」, 서광사, pp.13-14.
- 18) I. Hassan, 1986-7, “Making sense: the trials of postmodern discourse,” *New Literary History*, Vol.18; 신정현 옮김, 1989, “의미를 생성하기: 포스트모던 담론의 시련들,” 정정호·강내회 편, 앞의 책, p.242.

자로 맹비난한다.¹⁹⁾

변화가 요구될 때면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포스트모더니스트들 역시 완고하게 모더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 기존의 특권과 권력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신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새로운 전통의 급진적인 비판을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은 모더니즘이라는 미완의 기획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Huyssen이 지적하듯이 논쟁은 '거울아, 벽에 걸린 거울아, 우리들 중 누가 가장 덜 보수적이지?' 라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²⁰⁾ 본 논자는 Hutcheon에 동의하면서 Foucault나 Lyotard를 신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부정확하다고 본다.²¹⁾ 보수와 진보는 항상 상대적이며, 또한 보수나 진보나가 항상 의미로운 기준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Foucault나 Lyotard는 진보적임을 목적으로 사유하고 글을 쓰지 않았다.²²⁾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많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점이 명백해져야 한다. 첫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포스트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이고, 마지

막으로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이다.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위상은 반드시 모더니즘과의 관계에 의해 설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학과 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에서는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간의 관계를 다루지만²³⁾, 사회철학은 그렇지 않다. 본 논자는, 서문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예술에서의 스타일과 같은 것과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의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유방식과 예술양식은 양립할 수 없는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유방식으로서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간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다.

모더니티의 기본 이념, 즉 모더니즘을 축약해서 드러내고 있는 계몽 사상의 특징은 세가

19) P. Portoghesi, 1983, *Postmodern: The Architecture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Rizzoli, Chp.1: 유은경 옮김, 1990,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김옥동 편, 앞의 책, p.357.

20) Huyssen, *op. cit.*, p.303.

21) Hutcheon, *op. cit.*, p.159: Lyotard와 Habermas간의 논쟁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Lyotard가 Habermas의 비판이론 선배이자 그에게 자신의 이름이 붙은 상을 남겨주었던 Adorno의 '부정의 변증법'에서 자신의 논거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만일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에 열거한 이름들과 더불어 Adorno를, 특히 그의 「부정의 변증법」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의 사상속에서 포스트모던적 색채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Lyotard, 1984, "Appendice svelte á la question postmoderne," in *Tombeau de l'intellectuel et autres papiers*, Galilée; 이현복 편역, 1993, 「지식인의 종언」, 서광사, p.56.

22) Lyotard가 「포스트모던적 조건」을 1979년 불어판으로 출판한 이후 그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비난에 대해 1983년 대담 형식으로 쓴 다음 글에서 그의 절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 모두 총체성과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자. 표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자. 차이점을 활성화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자." Lyotard, 1983, "Answering the question: what is postmodernism," in I. Hassan and S. Hassan, eds., *Innovation/Renovation: New Perspectives on the Humanitie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허윤기 옮김, 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김옥동 편, 앞의 책, p.280.

23)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지자들은 사회비판적인 특징을 가졌던 아방가르드를 포스트모더니즘이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모더니즘과의 절연을 이야기 하지만, 반대자들은 모더니즘이 비판적 의식은 있으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결국 현실상황을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그러한 조그마한 비판의식마저 없애 버렸다는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연속인 것으로 비판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Huyssen과 Hassan의 앞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지로 요약된다.²⁴⁾ 첫째,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은 Descartes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둘째는 자연의 수학적화이다. 즉 자연을 이성적 인간이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째는 진보의 교의이다. 현대의 이같은 낙관주의는 자유·평등·박애의 원리에 의해 인도되는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을 목도하면서 드디어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구체화되었다고 기뻐한 Hegel에게서 극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해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가지 의미로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부여받고 있다. 이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post-’라는 접두어이다. 이 접두어를 ‘후기’라고 이해하면 모더니즘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탈’ 혹은 ‘반’이라고 번역하면 단절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²⁵⁾ 이러한 것을 보는 논자의 관점은 세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앞의 두가지와 소위 변증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 변증법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의 반체제로 보는 것으로서 ‘안전하게’ 제3의 길로 ‘지양(Aufhebung)’될 어떤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자는 여기에서 이 세가지 길을 모두 거부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뒤에서 밝히게 될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방식의 시대구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속임과 동시에 단절이다. Hass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²⁶⁾

우리는 어느 한 시대를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연속성과 단절성은 서로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 포괄적이지만 추상적인 아폴로적인 관점은 단지 역사적 연속성만을 판별해내는 반

면, 명석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육감적인 디오니소스적 감성은 유리된 순간 속에 들어 있는 진실을 직감적으로 포착해낸다. 포스트모더니즘도 이 두가지 관점이 지니는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관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통으로 즉위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Cooke의 다음 견해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²⁷⁾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총체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모더니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포스트모더니즘이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모더니티의 옹호자들을 그들이 무시하거나 그들이 강조했던 것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은 다른 수단을 통한(by other means) 모더니즘의 지속이다.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은 모더니즘 속에서 행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략은 모더니즘을 붕괴시킴으로써 자신도 그 속에서 붕괴되어 버리는 자폭의 전략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는 역설이 아니라 아이러니이다. 다음의 도식은 Hassan이 구분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별적인 특성들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편의적인 것이지만 모더니즘에 대한 대항관점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초’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운데 그어진 선은 대립전선이 아니다.

2) 포스트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문예이론가들과 달리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분하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문학과 예술에서의 논의와 사회과학에서의 논의를 구분할 필요를 사회과학자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Giddens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 미술, 조형예술 그리고 진

24) 윤평중, 앞의 책, pp.16-23.

25) 이광래, 1992, “철학적 언설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신일철 외, 「현대철학과 사회」, 서광사, p.238.

26) Hassan, 1987, *op. cit.*, p.63.

27) P. N. Cooke, 1990, *Back to the Future: Modernity, Post-modernity and Locality*, London: Unwin Hyman, p. v.

<표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Hassan, 1987, p.70)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낭만주의/상징주의 형식(연결적, 폐쇄적)	페터피직스/다다이즘 반형식(분열적, 개방적)
목적	유희
의도	우연
제급 질서	무질서
통계/로고스	소모/침묵
예술 대상/완성된 작품	과정/공연/해프닝
거리	참여
창조/총체화	탈창조/해체
종합	대조
존재	부재
집중화	분산화
장르/경계	텍스트/상호 텍스트성
의미론	수사학
제열 관계	결합 관계
종속적 구분	병력적 구분
은유	환유
선별	조합
뿌리/깊이	근경(根莖)/표층
해석/독서	반해석/오독
시니피에	시니피앙
읽을 수 있는(독해적)	쓸 수 있는(기술적)
내러티브/장대한 사건	반내러티브/사소한 사건
전체 통제 부호	개인 방언
중후	욕망
유형	돌연변이
생식기의/남근의	다형의/양성의
편집증	정신분열증
기원/원인	차연(差延)/혼적
성부(聖父)	성령(聖靈)
형이상학	아이러니
확정성	불확정성
초월성	내재성

측에서 존재하는 양식 혹은 풍조를 지칭하고, 포스트모더니티는 사회적 발전의 궤도가 우리를 새로운 근대 제도와는 다른 하나의 새롭고 독특한 유형의 사회로 데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한다.²⁸⁾ Lash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산업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 또는 근대사회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문화의 영역에 국한되어진다는 주장을 한다. 즉 후기-산업주의는 우리 시대 자본주의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성질로서 경제적인 성질이 문화적인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⁹⁾ Boyne과 Rattansi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미학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특징을 뜻하고, 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파급되는 전체적인 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³⁰⁾ 또한 Graham 등은 포스트모더니티를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문화적 조건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예술 사조 혹은 운동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티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티는 사회과학 속으로도 번역 되게 되는데, 예술과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명확하지는 않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윤흥중은 모더니티를 서양 근현대를 총체적으로 관류하는 시대 정신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모더니즘은 그러한 시대 정신이 문화와 예술 영역 일반에서 발현되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티라는 탈현대적 시대 정신의 하위 개념으로 포섭되는 것이다.³²⁾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티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토양, 혹은 푸

28) A. Giddens,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윤희·이현희 옮김, 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p.58.

29) S. Lash, 1990, *Sociology of Postmodernism*, London: Routledge; 김재필 옮김,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학」, 한신문화사, p.4.

30) R. Boyne and A. Rattansi, 1990, "The theory and politics of postmodernism: by way of an introduction," in R. Boyne and A. Rattansi, eds., *Postmodernism and Society*, London: Macmillan; 김보현 옮김,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전략에 대한 개설," 김보현·신명아 옮김,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한신문화사, p.10.

31) Graham, et al., op. cit., p.12.

32) 윤흥중, 앞의 책, p.14.

코식으로 하면 에피스테메가 되는 것이다. 본 논자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Graham 등의 논리를 지지하고자 한다. 즉 사회과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던적' 가정을 기초로 한 이론화의 양식, 혹은 이해의 양식, 실질적으로는 사회과학을 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³³⁾ 즉, 이것은 포스트모던적 대중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문학, 미술, 건축에서의 새로운 양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반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구분 없이 포스트모던 철학을 다른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일시하는 혼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Harvey의 경우, 포스트모던적 문화현상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포스트모던 철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유연적 전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자본주의가 이행되어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가 잉태한 상부구조적 문화현상으로 포스트모던 문화를 이야기한다. 이 때 문화란 대중문화를 포함한 예술사조상의 특성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즉, 포디즘이 모더니즘이라는 문화현상을 생성시키듯이 유연적 전문화는 포스트모던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논리'라고 보는 Jameson도 이와 유사한 맥락위에 서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자본주의의 진화형태나 그것의 반응으로서의 문화적 특성인 것으로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학계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논쟁에서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즉 주된 쟁점이 우리나라가 포스트모던적 시대에 접어들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는, 거의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allinicos와 같은 반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Harvey와 조절학파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정도의 자본주의 경제상의 변화조차 인정하지 않는다.³⁴⁾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즉 지난 2세기 동안에 전세계를 지배했던 자본주의 생산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탈산업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주요 주제들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포스트모던 예술이 20세기 초의 모더니즘과 질적인 단절을 표상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매우 회의적이다. 더욱이 내가 보기에 우리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상당수의 글들은 지적으로 편협하고, 대체로 피상적이고, 보통 무식하며,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듯해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더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며 다른 요소들, 즉 경제나 문화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로운 경제체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경제결정론적 사고에는 명백히 반대해야 한다. 앞으로 밝혀질 것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계승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질문들은 과거에도 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이성적 사유를 향한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의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의미있는 종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식론적 측면외에 대상, 목적,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 그 자체의 개념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포스트모던적 사유형태인 것이다.

3)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조주의=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등식이 그대로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포디즘=모더니즘, 포스트포디즘=포스트모더니즘, 혹은 맑시즘=모더니즘, 포스트맑시즘=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도식에서도 동등하게 적

33) Graham, et al., op. cit., p.12.

34) A. Callinicos, 1989, *Against Postmodernism -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임상훈·이동연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성림, p.16.

용되는 문제점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라는 분명한 모더니즘의 한 유형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동일성도 가지고 있다. 구조주의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Saussure의 기표/기의 관계를 대부분의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자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자한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와의 유사성보다 포스트모더니즘과의 유사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징에 보다 부합되는 포스트구조주의자만을, 혹은 그들의 주장 중 보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것만을 언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자가 언급하게 될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구조주의의 몽파쉴이다. 보다 강경하게 얘기 하자면 포스트구조주의를 주로 철학이나 사회과학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으로 보고자한다는 것이다.³⁵⁾

2. 포스트모더니즘의 條件들: 새로운 經濟決定論?

다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을 다루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의 성격이 문학이나 예술에서처럼 몇몇의 실험적인 사람들에 의해 양식이 주도되고 그것이 소수의 예술가나 비평가들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과학자의 논리가 현실 사회에 대해 최소한의 유관 적합성을 보여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 조건'을 보려는 것도 아니며, 포스트모던 철학의 태동을 사회경제적 변

화의 부산물로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금 다른 시대에 비해 더욱 더 수용되고 있는데 대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 문화, 철학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관여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며 어떤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배하거나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생조건을 후기산업사회, 다국적 자본주의, 소비 사회, 미디어 사회 등의 용어로 불리워지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즉, 새로운 유형의 소비, 계획된 퇴폐성,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패션과 스타일 변화의 급격한 리듬,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고와 텔레비전과 미디어의 침투, 도시와 시골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과거의 긴장이 교외와 일반적 표준화로 대체된 것, 거대한 초고속도로망의 발전과 자동차 문화의 도래와 같은 현상들이 2차세계대전전의 사회와는 급진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특징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이 후기자본주의나 소비자본주의 혹은 다국적 자본주의의 이러한 새로운 시기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것들은 주로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한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³⁷⁾

현재를 탈조직적 자본주의(disorganized capitalism)의 도래라고 진단한 Lash와 Urry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표 2>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³⁸⁾ 그러

35)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옥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김옥동 편,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현암사, pp. 10-55.

36) F. Jameson, 1983,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in Foster, *op. cit.*; 임상훈 옮김, 1993, "포스트모더니즘과 소비사회," 윤호병의 옮김, 「반미학: 포스트모던 문화」, 현대미술사, p.196.

37) Webber는 다음 글에서 Gibson & Horvath, Kleinknecht, Lash & Urry, Lipietz, Mandel, Piore & Sabel 등의 논의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M. J. Webber, 1991, "The contemporary transition,"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9, No.2, pp.165-182.

나 본 논자는 이러한 경제상의 변화를 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흥기를 설명하려는 논리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경제체제 상의 변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금처럼 각광받게 된 것의 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대의 표피적 문화를 옹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다루고 있는 철학적 쟁점들은 이러한 변화들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이것은 Harvey가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Warf의 글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³⁹⁾ 또한 Lash와 Urry도 포스트모던적 문화를 탈조직적 자본주의 단계의 반영이라고 보는 일면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는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⁴⁰⁾

3. 포스트모더니즘의 認識論的 特性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성사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물음이라고 볼 때, 사실상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그것의 독특한 인식론을 추출해낸다는 것은 모순적인 작업이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 근대 철학이 인식론에 집착한 것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철학의 중심주체의 전의를 내적으로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인식론을 비판하는 한 인식론 '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나는 그것을 변증법, 해석학, 정초주의 각각에 대한 해체라는 세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2〉 자본주의의 발전단계별 시·공간적 특성들

자본주의 발전단계	지배적인 시간적/공간적/조직적 구조	각 지역내에서의 공간적 변화	지식전달과 감시수행의 지배적 수단
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조적 통치자 혹은 세계종교를 중심으로 성립되었던 제국들의 전면적 붕괴 · 초보적 수준의 국민국가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산업지구의 성장 ·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도시 중심의 성장, 상업도시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사(handwriting)와 구어(word of mouth)
조직적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여개의 주요 서구 경제내의 국민국가의 식민지화를 통한 나머지 세계에 대한 지배의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도시센터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 경제의 발달 · 신산업 지역과 비산업 지역 간 및 국가간의 현저한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를 통해 발달한 인쇄물
탈조직적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의 발달, 국제적 분업,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자본주의의 파급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국가적 경제의 쇠퇴와 산업도시의 쇠퇴 · 소도시와 농업지역에서의 산업 성장 · 서비스산업의 발달 · 금융과 산업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극단적으로 사람들간의 시공간 거리를 감소시키고 감시의 권능을 증가시킴

38) S. Lash and J. Urry, 1987, *The End of Organized Capitalism*,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16.

39) B. Warf, 1993, "Postmodernism and the locality debate; ontological questions and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Vo.84, No.3, pp.162-168.

40) Lash and Urry, *op. cit.*, p.286.

1) 辨證法이라는 思惟發展 혹은 歷史發展 論理의 破産

앞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언급되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반대체가 아니며, 따라서 '손쉽게' 제3의 어떤 것으로 '지양(Aufhebung)' 될 어떤 것이 아니다. Hutcheo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⁴¹⁾

'포스트' 라는 위치는 시간적으로 그것에 앞서고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의존하는 동시에 모순되게도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나는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모순되는 관계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의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인 단절은 아니며, 그렇다고 모더니즘과의 일관된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즉 그것은 '모두 들 다'인 동시에 '어느 것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모순이란 변증법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시 Hutcheon은,⁴²⁾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적'인 것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적 변증법적 의미의 '모순적'인 것도 아닌 입장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말하는 어떤 방법이다. ...풀리지 않는 역설이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해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지 모르지만, 포스트모던 조건의 새로운 표현을 자극하는 지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포스트모더니즘이 하고자 하는 작업은 이항대립으로 표현되는 이분법적 양상들의 구분을 철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러한 이분법을 변증법이라는 선협적인 틀속에서 쉽게 해소하려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다.

변증법적 사고에 반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Derrida의 사상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⁴³⁾

...차이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Hegel의 숨이 작동하는 곳 어디에서나 그것의 제한 차단 파괴인 것이다. ...이는 형이상학의 이항대립을 단순히 증화시키거나 이를 공고히 하면서 이러한 대립의 닫혀진 영역 속에 단순히 머무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대립을 해체한다는 것은 우선 어떤 주어진 순간에 위계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복의 단계를 무시하는 것은 대립의 갈등적이고 종속적인 구조를 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태도는 이전의 대립에 대한 어떠한 효과적인 장악도 유지하지 못한 채 증화의 상태로 지나치게 빨리 이행하게 되며 이는 실제적으로 이전의 영역을 현상유지시키고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박탈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리다는 Hegel의 차이(difference)와 자신을 구분하기 위하여 e를 a로 바꾼 差延(différance)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었다.⁴⁴⁾ 해체는 Hegel적 변증법에 대한 차연작용이다. 해체는 이항대립을 변증법적 과정 속으로 집어 넣는 통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체는 규칙을 비규칙화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변증법적 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토대에 대한 영원한 개입이다.⁴⁵⁾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긴장들을 견디는 것이다. Lyotar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⁴⁶⁾

포스트모던 지식은 단순히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차이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세련시키

41) Hutcheon, *op. cit.*, pp.175-176.

42) *Ibid.*, p.181.

43) J. Derrida, 1972, *Posi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박성찬 옮김, 1991, 「입장들」, 숲, pp.64-65.

44) Derrida에 의하면 모든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差異(différence)와 延期(deferral)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간적 의미의 차이와 시간적 의미의 연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다.

45) M. A. Doel, 1992, "In stalling deconstruction: striking out the postmodern,"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10, No.2, p.168.

46) Lyotard, 1979, *op. cit.*, p.15.

고 불가공약적(incommensurability)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킨다.

또 Hutcheon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⁴⁷⁾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반대적 견해 전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잠정성을 인정하는 자기 인식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은 자연스럽게 의미의 '다원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로 이끌며 다양성의 추구를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색이 되게 한다.

2) '徵候的 讀解(symptomatic reading)' 라는 解釋學的 規準의 破産

'징후적 독해'라는 말은 Freud 심리학의 용어이다. 말 그대로 환자의 정신적 상태의 해석은 그들이 보이는 징후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후적 독해'라는 말이 사회과학적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구조주의 Marxist로 알려진 Althusser에 의한 것이다. 그는 Marx의 저작에 대한 징후적 독해를 통해 Marx 저작상의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break)⁴⁸⁾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하여 경제결정론적 Marx 해석과 Sartre류의 인간주의적 Marxism의 횡포로부터 Marxism을 과학적으로 구출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Althusser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의 해석은 비록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그 내용의 징후들을 통하여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논자는 이러한 '징후적 독해'를 Althusser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더니적 해석학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으로 본다. 즉,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찾는 행위, 이것이 '해석'이라고 불리워져 왔던 것이다. Kelln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⁴⁹⁾

모더니티는 Marx와 Freud의 시대였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생활이 경제의 부산물인 것으로 해석되는, 혹은 모든 것이 욕망이나 무의식에 의거해서 해석되는 그런 시대였다. 이러한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은 실체를 벗기기 위해, 그리고 표면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실체들과 사실(fact)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factor)들을 폭로하기 위해 심층모델(depth model)을 설정하는 것이다.

Schleiermacher와 Dilthey로부터 시작된 해석학적 운동은 최근의 Gadamer와 Habermas에게 까지 이어진다. 이 때 Schleiermacher와 Dilthey가 해석학적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반면, Gadamer는 해석자와 피해석자간의 인식 지평이 융합되는 것(fusion of horizons) 그 이상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후퇴한다.⁵⁰⁾ 그러나 해석학적 전통은 소위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운동 속에서 보다 언어의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⁵¹⁾

47) Hutcheon, *op. cit.*, p.168.

48) Bachelard의 용어로서, Althusser는 초기의 Marx 저작과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후기 저작사이에 심대한 단절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초기의 Hegel적이고 휴머니즘적인 Marx 저작은 Marxism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49) D. Kellner, 1988, "Postmodernism as social theory: some challenges and problems,"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246.

50) Gadamer의 해석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G. Warnke, 1987, *Gadamer; Hermeneutics, Tradition and Reas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이한우 옮김, 1993,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 사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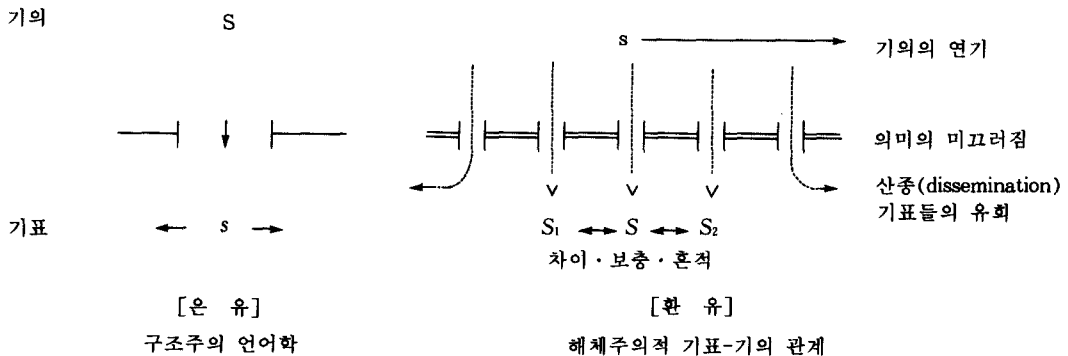
51) 이것은 Gadamer와 Habermas간의 논쟁을 통하여 부각되었는데, Gadamer가 해석활동의 조건으로서 문화전통에 강조점을 둔 반면, Habermas는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행위라는 관념에 집중했다. Gadamer와 Habermas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D. Lakapra and S. L. Kaplan, eds., *Modern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 Reappraisals and New Perspectives*, Cornell University Press; (M. Jay의 글) 이광래·이종흠 옮김, 1986, 「지성사는 언어학적 전회를 시도해야 할 것인가? - 하버마스-가다머 논쟁에 관한 고찰」, 「현대유럽지성사」, 강원대학교출판부, pp.97-130.

언어학적 전회의 연원은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현(representation)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택적인 언어 구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석학과 연결되는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그의 기의(signified, 시니피에)-기표(signifier, 시니피앙) 관계에 대한 논의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 Saussure는 기호를 표현의 청각적 영상인 기표와 그것에 대한 개념이나 심적 관념을 나타내는 기의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양이'라는 표현 형태는 기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는 고양이라는 '개념'은 기의가 된다. Saussure는 이 기의와 기표의 관계를 임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고양이라고 부르는 것'과 '고양이'라는 말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표가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은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 속에서일 뿐이다. 즉, '고양이'는 '개'나 '호랑이'와 다른 형태를 띠는데서 그 기호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주의 언어학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급진화시킨다. Saussure 언어학은 기의와 기표 사이의 관계를 임의적이라고 보지만 기표에 대한 기의의 우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관계를 해체해 버린다.

이 도식을 해석학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표는 우리의 해석 대상이다(예를 들어 경관). 그러한 대상의 궁극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기의는 기표들간의 끊임없는 유희를 통하여 영원히 연기된다. 즉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⁵²⁾ 따라서 해석 대상의 의미는 결정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정불가능성을 설명하는 Derrida의 한 논리가 散種(dissémination)인데, 이것은 기의의 의미가 기표들 속으로 뿌려진 것으로, 구조주의 언어학이 한 기의가 한 기표에 대응되는데 반해, 이것은 기의의 의미가 여러 기표들 속으로 흩어져 버림으로서 기의의 의미가 영원히 드러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⁵³⁾ 즉, 산종은 기표속에 내재된 기의의 複意化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기표와 기의간의 경계를 차이나게 하고 연기하는 것이다.⁵⁴⁾ Derrida는 다의미성이라는 말대신에 이 산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기의가 존재하

〈표 3〉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표-기의 관계의 차이점



52) 이러한 도식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짜여져 있다.”고 본 Lacan의 정신분석학과, 고정된 기의에서 기표를 해방시키고자한 후기 Barthes의 기호학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53) Derrida는 고정된 기의를 ‘초월적 기의’라고 부르는데, 형상, 근원, 텔로스, 에너지, 본질, 진리, 초월성, 의식, 신, 인간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Derrida, *op. cit.*, p.43.

54) Doel, *op. cit.*, p.173.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기표를 통하여 기의를 해석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리, 본질과 같은 초월적 기의를 해체함으로써 진리들과 본질들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⁵⁵⁾ 모던적 재현의 무덤 앞에, 비집착적인(unsettled) 포스트모더니즘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⁵⁶⁾

심층적인 것의 해체는 중심에 의해 착취당했던 많은 주변적인 것들을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페미니즘, 제3세계, 인종적 하위 집단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푸코의 권력-지식 관계를 통한 '권력의 미시물리학'의 탐구는 그가 말하듯이 역사의 핵심인 경제사나 정치사를 벗어나는 것이다.⁵⁷⁾

철학자나 문학사가처럼 역사가들은 지금까지 역사의 소재로 소위 위대한 사건만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양상이 바뀌어 역사가들은 기왕에 <하찮게 보이던 사건>을 역사기술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3) 定礎主義(foundationalism)라는 科學哲學의 破産

포스트모던적 사고는 당연히 과학철학에 급진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Rorty는 모더니즘의 과학철학을 정초주의라고 부른다. 정초주의란 자명한 공리를 기반으로 그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 것들은 진리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그런 주장을 응용한 공리적 방법론을 이르는 말이다.⁵⁸⁾ 이러한 정초주

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⁹⁾ 첫째, 정초주의는 대체로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전제한다. 둘째, 인식주관의 투명성 내지는 보편적 인식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한다. 셋째, 지식체계 내부의 위계성을 주장하여 어떤 지식은 다른 지식의 토대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넷째, 철학이 해야 할 바는 지식의 정초화 작업으로 본다. 따라서 철학이 인식론 위주로 전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모더니즘 과학철학의 대표적인 논리실증주의, 인간주의, 탐시즘 모두 이러한 정초주의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경험적 사실, 인간의 주관성, 자본과 계급이라는 중심적 토대 위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Rorty 철학의 태동은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보다 오래된 전통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⁶⁰⁾ 가깝게는 과학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Kuhn이나 인식론적 아나키즘을 주장한 Feyerabend에서 이미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Rorty는 이러한 상대주의적 사상을 미국적인 실용주의 특히 Dewey의 도구주의를 재발굴하여 진리와 합리성에 관한 문제를 Heidegger적으로 해석한다. 그는 이것을 다시 프랑스 철학의 반체계적이고 반토대적인 경향과 연결시켜 자기의 입장을 '신실용주의(new pragmatism)'라고 부른다.⁶¹⁾

Rorty의 신실용주의 사상은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⁶²⁾ 첫째, 반본질주의이다. '진리', '지식', '언어', '도덕' 등의 관념에 적용한 반본질주의이다. Rorty는 진리를 '실재와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념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두번째, 전통적으로 자

55) Lyotar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사회적 유대는 상이한 규칙에 복종하는 적어도 두 종류의(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언어 게임들이 교차하는 조직망이다." Lyotard, 1979, *op. cit.*, p.94.

56) Doel, *op. cit.*, p.170.

57) M. Foucault,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홍성민 옮김, 1991,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나남, p.61.

58) 김동식, 1991, "로티의 반정초주의," 「철학과 현실」, 제11호, p.136.

59) 위의 글, pp.137-138.

60) 엄정식, 1991, "리처드 로티: 현대철학과 인식론적 상대주의," 김옥동 편, 앞의 책, pp.313-323 참조.

61) 위의 글, pp.326-327.

62) 신중섭, 1992, "로티의 네오 프래그머티즘: 대화와 연대의 철학," 신일철 외, 앞의 책, pp.135-138.

명하다고 생각해 온 이분법에 대한 반대이다. 즉, 무엇이 어떠한가만 하는가에 대한 진리와 무엇이 어떠한가에 대한 진리사이에는 인식론적인 차이가 없고, 사실과 가치 사이에는 형이상학적인 차이가 없으며, 도덕과 과학 사이에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대화적인 것만이 탐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특징에 따르면 대상, 정신, 언어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제한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 탐구자들의 의견에서 부과되는 제한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Sayer는 이러한 Rorty의 사상을(물론 명시적으로 Rorty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스트 전반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정초주의에 대한 비판을 곧바로 관념론으로 지향시킨 것으로 비판하면서 반정초주의적이지만 객관적 타당기준을 제거하지 않는 제3의 길로서 실재론을 주장하고 있다.⁶³⁾ 이러한 모든 주장들을 정초주의/반정초주의, 객관주의/상대주의의 도식

을 가지고 표를 그려보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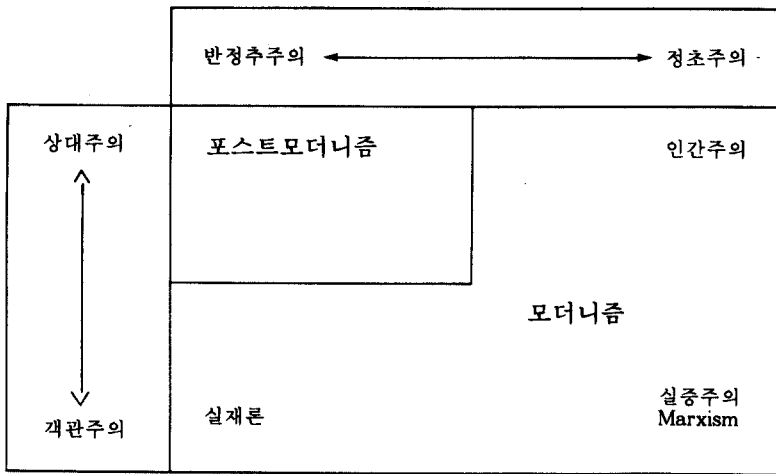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인간주의는 인간주체라는 인식적 중심을 가지지만 해석의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주의적 정초주의이며, 실증주의와 Marxism은 객관주의적 정초주의가 된다. 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명백히 상대주의적 반정초주의가 되고, 제3의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실재론은 객관주의적 반정초주의가 된다. 왜냐하면 실재론은 해석의 토대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⁴⁾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地理學

1. 포스트모던 地理學의 成立과 危機의 시나리오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흥기는 대체적으로 Peet와 Thrift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라고 통칭한 관점의 성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⁶⁵⁾ 또

<표 4> 포스트모더니즘의 과학철학적 위치



63) A. Sayer, 1993, "Postmodernist thought in geography; a realist view," *Antipode*, Vol.25, No.4, pp.320-321.

64) 실재론적 관점을 통한 실증주의와 맑시즘의 공통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일, 1990, "실재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24집, p.3-4.

65) R. Peet and N. Thrift, 1989, "Political economy and human geography,"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 Vol.II, London: Unwin Hyman, pp.3-29.

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회과학 전반에서 하나의 은유법으로 자주 쓰이게 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⁶⁶⁾ 그러나 이러한 측면보다는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80년대 중반 이후 지리학적 논쟁의 전면에서 떠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⁶⁷⁾ 이러한 노력은 「사회와 공간(Society & Space)」誌의 논쟁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⁶⁸⁾ 그러나 이 논쟁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는데, 주로 맑시즘의 경제결정론적인 '거대 담론(meta narrative)'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마치 맑시즘에 대항하여 실재론, 구조화이론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⁶⁹⁾ 보다 포스트모더니즘 자체에 경도된 논문은 Dear와 Gregory에 의해 시작되었다.⁷⁰⁾ 그들은 공히 모던적 인문지리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은 거의 정통 맑시스트 정치경제학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우쳐 있고 주류 실증주의 진영에서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위기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그런지 않은 지리학자들은 1988년 이후 급속도로 포스트모더니즘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것은 세번에 걸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⁷¹⁾ 이러한 위기의 시나리오는 다음에 본 논자가 '재구성론자'라고 부른 학자들에 의

해 설정된 것이다. 특히 Warf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²⁾ 그러나 뒤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그들에 의해 상징된 위기는 시물라크르(假象實體)였다.

2. 두종류의 모던적 포스트모던 지리학

본 논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선택적으로 혹은 열광적으로 수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심각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오해한 최근의 조류를 묘사하기 위해 '모던적 포스트모던 지리학'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것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재구성론'과 '정초주의적 문화론'이다. 뒤에서 각각이 어떻게 포스트모더니즘을 잘못 전유했는가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포스트모던 지리학자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1) 모던 지리학의 재구성(reconstruction)

본 논자가 '재구성론자'라고 부르려 하는 사람들은 Dear, Gregory, Warf 등이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던 지리학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통하여 모던적 인문

66) N. Smith, 1992, "Geography, difference and the politics of scale," In Doherty, et al., op. cit., p.57.

67)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정리와 비판적 검토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일, 앞의 글, pp.12-19.

68) Society & Space, 1987, "Reconstructing social theory: a debate,"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5, No.4, pp.363-434.

69) R.A. Beavregard, 1988, "In the absence of practice : the locality research debate," *Antipode*, Vol.20, No.1, pp.231-239.

70) Dear, op. cit.; Gregory, op. cit.

71) *Antipode*(1993, vol.25)에서 Barnett, Sayer, Hannah & Strohmayer간의 논쟁이 있었고, *TESG*(1993, vol.84)에서 Warf, Short, Ley, Pater, Pijkink간의 논쟁이 있었다. 또한 *Annals*(1991, 1992, vol.81, 82)을 통해 Curry, Pred, Hannah & Strohmayer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72) Warf는 그러한 대응의 내용을 다음의 일곱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사회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 둘째, 지역주의의 부활과 지방별 고유성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 셋째, 문화, 언어, 지식,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탐구영역을 확장하는 것, 넷째, 텍스트분석, 문예이론, 그리고 해체주의의 충만, 다섯째, 민속방법론의 성숙, 여섯째, 구조주의와 목적론적 설명의 종말, 일곱째, 계급에 기초한 사회분석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성이나 민족성과 같은 여타 사회적 구정력에 기초한 분석모델로의 이행. Warf, op. cit., p.163.

지리학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모더니즘을 포스트모더니즘화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화하는 것이다. 이런 재구성론자에 대한 Doel의 비판은 전적으로 옳다.⁷³⁾

...지리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심대하게 Derrida와 Lyotard를 오독했다. 이러한 오독은 우연이 아니라 지리학적 담론에 계속적으로 슬그머니 유착되어 있던 Hegelism의 결과이다. ...지리학자들이 제기한 그 위기는 하나의 가상물이다. 왜냐하면 지리학은 위기에 처한 것들을 벌충하기 위하여 계속 '잔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심은 지리학의 형식과 내용으로만 제한될 것이고 결코 지리학 그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위기의 假裝은 소멸의 가능성이 구축의 계기안으로 승화될 때 가장 현저해진다. 잔존의 계략, 즉 이성의 계략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략의 이름은 다름아닌 止揚(Aufhebung)이다. 지양에 의존함으로써 모던과 포스트모던의 논쟁은 항상 이미 유지되고 해소되어진다. 그러나 지양 그 자체는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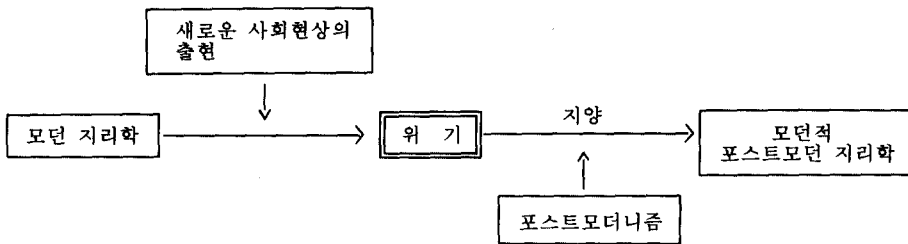
따라서 Doel은 구축(construction)-해체(deconstruction)-재구성(reconstruction)이라

는 변증법적 삼단논법 속에서 해체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다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⁷⁴⁾ 그러므로 재구성론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아니다. 이것은 정-반-합의 삼단논법의 토대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것이다.⁷⁵⁾ 이러한 재구성의 논리를 도표화하면 <표 5>와 같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화하는 방식을 다루기 위해 Gregory의 사고를 추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세가지로 정리한다. 그것은 각각 탈파라다임, '심층적 구조'에 대한 거부, '차이'에의 강조이다.⁷⁶⁾ 이것을 바탕으로 Gregory는 세가지 방향에서 '지역차(areal differentiation)'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Harvey와 Massey류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 구조화 이론과 시간지리학의 접목을 통한 사회학적 지리학, Geertz류의 ethnography와 재현의 문제와 관련된 인류학적 지리학이다.⁷⁷⁾ 이것을 그가 다른 곳에서 도표화한 것을 보면 <표 6>과 같다.⁷⁸⁾

이러한 도식은 Dear가 경제지리, 정치지리,

<표 5> 재구성론자의 위기의 시나리오와 지양의 과정



73) Doel, *op. cit.*, pp.164-169.

7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지적한 Pile과 Rose의 견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S. Pile and G. Rose, 1992, "All or nothing? politics and critique in the modernism-postmodernism,"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10, No.2, pp.123-136.

75) Doel, *op. cit.*, p.169.

76) 재구성론자들은 Derrida가 강조하는 '차연' 개념에 집착하여, 그것을 공간적 차이로 쉽게 오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차연이 공간적 차이로 번역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Gregory 등이 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77) Gregory, *op. cit.*, p.67-96.

사회지리를 중심으로 지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한 것과 유사하다. 79) 이러한 재구성론자의 시각은 Dear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80)

...비록 나는 새로운 거대 이론을 탐색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 좋다(Anything Goes)"라는 학파에 고착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은 명백히 해야한다. ...나는 사실상 순수한 포스트모던적 관점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다 제한된 상대주의(limited relativism)를 채택한다. ...사회이론에서의 경향들에 가담함으로써,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받아들임으로써, 인문지리학의 파편화된 정체성과 의미는 확립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의 수집과 해석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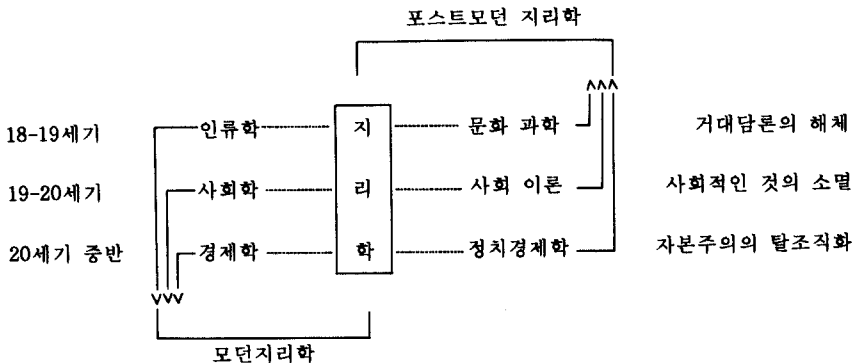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을 도구로 하여 지리학을 재구성하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리학이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정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을 부분적으로 섭취하거나, 다

음에서 보게될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을 포스트모던적 현상이라는 대상의 영역속에 자신을 묶어 두려는 경향을 드러내게 된다. 81)

2) 定礎主義的 文化論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보다는 포스트모던 현상이라고 부르는 문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의 필연적인 부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포디즘이 모던적 문화를 생산하듯이, 포스트포디즘(혹은 유연적 축적체제)은 포스트모던적 문화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Mandel의 후기자본주의론(late-capitalism)과 Williams의 문화유물론⁸²⁾을 수용한 Jameson과 Harvey, 그리고 Soja⁸³⁾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표 6〉 Gregory의 포스트모던 지리학의 구성



78) D. Gregory, 1989, "The crisis of modernity? human geography and critical social theory," in Peet and Thrift, *op. cit.*, p.350.

79) Dear, *op. cit.*, p.270.

80) *Ibid.*, p.272.

81) 사회학의 경우도 이러한데, Featherston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사회학 연구를, Bauman의 경우는 '소비사회의 사회학'을 주장한다. M. Featherston, 1988, "In Pursuit of the postmodern: an introduc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195-216; Z. Bauman, 1988, "Is there a postmodern sociology?,"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217-238. 또 우리나라의 사회학계의 경우, 다음의 논문은 재구성적 시도를 명백히 보여준다. 한상진·김성기, 1991,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보아야 한다 - 하나의 논쟁을 위하여," 정정호·강내희 편, 앞의 책, pp.283-303.

82) Williams의 문화유물론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박거용, 1992, "지배문화 분석의 한 모델 - 레이몬드 윌리엄즈의 문화유물론," 「문화과학」, 창간호, pp.135-152.

〈표 7〉은 이들의 설명도식을 도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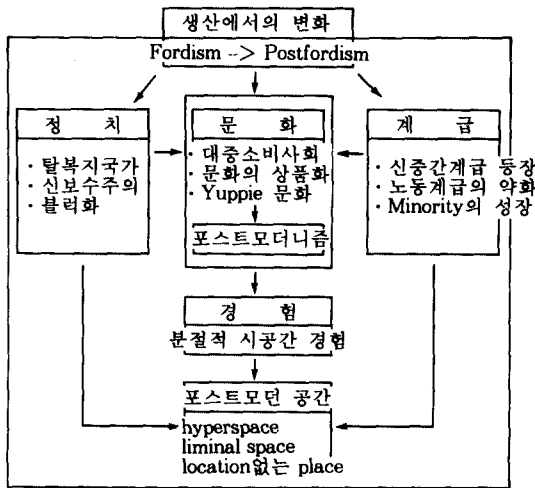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문화적 우세종으로 본다. 즉 우세종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일련의 여러 특징들이 그 우세종과는 아주 다르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다.⁸⁴⁾ 그리고 그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하고, 그것의 특징을 페스티쉬(혼성모방)의 만연, 주체의 죽음, 향수 양식으로 보고 이러한 소비사회의 하나의 결과로서 포스트모던적 초공간(hyperspace)의 탄생을 이야기 한다.⁸⁵⁾

Harvey는 그의 저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

건」에서 그가 시도한 것을 다른 글에서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⁸⁶⁾ 첫째, 차이와 '타자성(ootherness)'은 보다 궁극적인 맑시즘의 범주들(계급, 생산력 등)에 첨가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의 변증법을 포착하려는 때 시도마다 바로 그 시작에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둘째, 이미지와 담론의 생산은 사회적 규칙의 재생산과 변화의 부분으로서 분석되어야만 하는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다. 셋째, 공간과 시간의 차원이 중요하며, 사회적 행위의 진정한 지리가 있다. 즉, 무한한 차이를 담보한 장소들인 권력의 영역들과 공간들이 은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의 총체적 논리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사적-지리적 유물론은 폐쇄적이고 고정된 이해양식이 아니고 개방적이며 변증법적인 탐구양식이다. Harvey는 문화의 해석을 그의 유연적 전문화로의 전이라는 자본주의 자본축적방식상의 변화라는 개념에 의존하지만 문화를 다룬다는 측면,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현시기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큼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과도한 경제결정론을 회피하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틀로서 생산-노동-공간-국가-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한 Swyngedow의 도식은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⁸⁷⁾(표 8) 여기에서 비슷한 입장이지만 Harvey와 Soja

〈표 7〉 정초주의적 문화론의 설명 도식



83) E. Soja, 1988,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Verso에서의 도시 연구가 예가 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최홍준, 1993, 「1980년대 후반 이후 문화과정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도시적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84) F. Jameson,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Vol.146: 강내희 옮김, 1989, "포스트모더니즘 -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앞의 책, p. 143.

85) Jameson, 1983, *op. cit.*, p.192.

86) D. Harvey, 1993, "From space to place and back again; reflections o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ner, eds., *Mapping the Future;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London: Routledge, p.3.

87) E. Swyngedow, 1986, "The socio-spatial implications in industrial organization," Working Paper, No.20. Johns Hopkins European Center for Regional Planning and Research, Lille; Harvey, *op. cit.*, pp.177-179에서 재인용.

〈표 8〉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의 차별적 특성들

포디즘적 생산 (규모의 경제에 기반)	Just-in-time 생산 (범위의 경제에 기반)
A. 생산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상품의 대량 생산 · 일률성과 표준화 · 대규모의 완충 재고와 재고목록 · 사후적 품질관리(불량품의 사후 색출) · 불량품이 완충 재고 속에 은닉 · 긴 기동시간, 결합 부위들, 재고 병목으로 야기된 생산 시간의 손실 · 자원지향적 · 수직적, 수평적 통합 · 임금 통제를 통한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일괄(batch) 생산 · 다양한 상품 유형의 유연적이고 소규모 적인 일괄 생산 · 무재고 · 중간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즉각적인 불량품의 색출) · 결합 부위의 즉각적인 제거 · ‘근무일의 다공성’의 감소로 말미암은 시간손실의 감소 · 수요지향적 · 하청을 통한 (준)수직적 통합 · 장기 계획에 통합되어 있는 learning-by-doing
B.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별 단일 과업 수행 · 등급별 임금 지불(직무 설계 표준에 근거) · 고도의 직무 전문화 · 직무 훈련의 전무 혹은 미비 · 수직적 노동 조직 · 학습 경험의 전무 · 노동자의 책임성 감소 강조(노동력이 통제/징계) · 직업 안정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 과업 · 개인적 임금 지불(세세한 상여금 체계) · 직무 구분의 철폐 · 장기간에 걸친 직무 훈련 · 보다 수평적인 노동조직 · 직무 학습 · 노동자의 상호책임성 강조 · 핵심노동자의 높은 고용안정성(평생고용) · 시간제 노동자의 낮은 직업 안정성, 열악한 노동 조건
C.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공간적 전문화(중심화/탈중심화) · 공간적 분업 · 지역 노동시장의 동질성(공간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 생산요소들과 하청공장의 세계적 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군집과 집적 · 공간적 통합 · 노동시장의 다양화(지역내 노동시장의 분절화) · 수직적 준통합 공장들의 공간적 인접성
D.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화 · 경직성 · 집단적 교섭 · 복지의 사회화(복지국가) · 다자간 협상을 통한 국제적 안정성 · 중심화 · ‘보조금’ 국가/도시 · 임금과 가격 정책을 통한 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국가 개입 · 국가적 지역적 정책 · 공장의 재원을 통한 연구개발 · 산업주도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규제화/재규제화 · 유연성 · 구분/개별화, 지방별 혹은 공장별 협상 · 집합적 필요와 사회적 안정성의 민영화 · 국제적 불안정화, 증가된 지정학적 긴장 · 탈중심화와 참여화된 지역내/도시간 경쟁 · ‘기업적’ 국가/도시 · 외주관리를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개입 · ‘영역적’ 지역 정책(third party form) · 국가 지원 재원에 의한 연구개발 · 국가주도의 혁신
E. 이데올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소비재의 대량소비; 소비사회 · 모더니즘 · 총체성/구조적 재편 ·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된 소비; ‘여파’ 문화 · 포스트모더니즘 · 특이성/적용 · 개별화, ‘스펙터클’ 사회

를 수정하고자 하는 Lagopoulous의 논의는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대상은 (물질적) 사회-(의미적)문화-(지리적)공간의 3차원으로 구성되는데, Harvey와 Soja는 처음과 마지막에만 집중함으로써 완전한 설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 이것의 대안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 자체에만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Bakhtin의 문예이론, Eco의 기호학, Bourdieu의 사회학을 수용하여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유물론적 사회기호학(materialist social semiotics)을 주장한다.⁸⁸⁾

3. 포스트모던 地理學의 存在論 : 포스트모던적 空間 概念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공간' 개념 자체에 대한 급진적인 변형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의 특정한 공간 개념을 추출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을 '공간'의 이름으로 잘못 전유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자는 세가지로 포스트모던적 공간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각각 '메타포'로서의 공간, '담론'으로서의 공간, '기표'로서의 공간이다.

1) '메타포'로서의 空間

현재 인문·사회과학계는 마치 유행처럼 '공간'을 어떤 다른 현상의 재현(representation) 도구, 즉 메타포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Smith가 '공간적 전회(spatial turn)'⁸⁹⁾라고 부른, 인문사회과학에서의 공간의 중요성의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Society & Space와 Antipode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많은 지리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간이 사회이론에서 배제됨으로써 지니게 된 이론적 허약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새로운 현상들을 의미 있게 재현할 수 없다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의 각성이 이에 수반되어 있는 것이다.⁹⁰⁾

Pratt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간적 메타포를 세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⁹¹⁾ 첫째는 이동의 수사학(rhetoric of mobility)에 의존하는 것으로 '방랑(nomadism)', '여행(traveling)', '이주(migration)', 'flaneur'⁹²⁾와 같은 단어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타포는 문화적 계층을 해체함으로써 자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난 포스트모던적 비교문화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정된 정체성이 부재한 문화를 마찬가지로 고정된 정체성을 간직하지 못한(타문화에 소속된) 연구자가 연구하는 행위, 이것은 마치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⁹³⁾ 두번째 유형의 메타포는 추방(exile)

88) A. P. Lagopoulous, 1993. "Postmodernism, geography, and the social semiotics of space,"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11, No.3, pp.255-278.

89) Smith는 인문 사회과학 전반이 언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언어학적 전회(linguistic turn)'라는 말을 페스티쉬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Smith, 1992, *op. cit.*, p.60.

90)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정치지형', '문화지형'과 같은 용어처럼 사회현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말하고자 할 때 '지형'이라는 메타포를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91) G. Pratt, 1992. "Spatial metaphors and speaking positions,"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10, No.3, pp.241-244.

92) 이 프랑스 단어는 '방랑자', '한량'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Benjamin이 초현실주의자 보들레르에 대해 쓴 말이다. 보들레르는 Benjamin에게 있어 탁월한 한량이었다. 그 한량의 나태함은 창조적이었고 그 한량의 무목적성이나 무계획은 미래지향적이었다.

93) 이러한 관점에서 있는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는 E. Said, G. Spivak, J. Clifford, G. E. Marcus, N. Fraser 등이 있다. 특히 Marcus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문화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성찰성(reflexivity)'을 들고 그러한 성찰성을 증대시키는데 공간적 메타포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G. E. Marcus, 1992. "More (critically) reflexive than thou: the current identity politics of representation,"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10, No.5, pp.489-493.

혹은 주변부에서의 삶(living at the margins)과 관련된 것으로 지배적인 헤게모니적 관점을 보유한 권위나 범주를 붕괴시키려고자 하는 시도에 빈번히 등장한다. 세번째의 공간적 메타포는 境域(borderland)이다. 접경지역은 단절과 교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불평등, 지배, 강압적 배제를 통한 차별화와, 이와 동시에 관계망 속에서 개인적인 정체성이 획득되는 현대의 사회상을 지적하는데 매우 유용한 재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메타포의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Smith는 공간에 대한 물질적 개념과 메타포적 개념을 구분하고, 메타포적 공간 개념에 의존할 경우 종래의 '절대적 공간' 개념으로 회귀하게 됨으로써 사회과학에서의 공간 사멸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⁴⁾ 따라서 그는 메타포적 공간 개념이 물질적인 '관계적 공간' 개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능할 때에만 가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mith의 이러한 관점은 메타포의 재현적 기능을 매우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메타포는 이것 이상이다.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생물학적 메타포는 사회과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거나(Parsons의 구조기능주의나 체계이론), 도시내부구조의 전개과정을 동식물의 침입, 천이 과정으로 본다거나(Burgess의 동심원이론), 도시체계의 형태를 인간의 신체에서 은유한다거나(중추도시와 같은 용어), 생물학적 메타포가 지배적이었던 예는 수없이 찾을 수 있다.⁹⁵⁾ 그러나 지금

은 어디에서도 생물학적 메타포가 의미있게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주된 메타포의 전환은 Kuhn의 파라다임상의 혁명과 비교될 수 있는 인식 지평의 전환이다. 주도적인 메타포의 변화는 수사법상의 변화 이상의 거대한 '지성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메타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angle)을 창조하는 것이다.⁹⁶⁾

Foucault는 파랑스의 좌파 지리학 잡지 「에로도트(Hérodote)」의 편집진과의 대담에서, 공간적 메타포의 사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 바 있다.⁹⁷⁾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권력관계의 모든 현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배의 형태를 장(field), 지역(region), 또는 영토(territory)라는 전략적인 개념을 통하여 이해해야만 했다. ...공간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담론을 해독하고자 하는 것은 담론의 변화가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또 Derrida가 그의 差延(différance)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적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⁹⁸⁾

차연 개념이 가지는 명백히 상이한 두가지의 가치는 프로이트의 이론 속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즉, 분별성, 구별, 분리로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간화(spacing)와 우회, 릴레이, 보류로서의 연기를 의미하는 시간화(temporization)가 그것이다.

94) D. Smith,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 in Bird, et al., op. cit., pp.95-99.

95) 생물학적 은유를 포함한 은유법이 경제지리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T. J. Barnes and M. R. Curry, 1992, "Postmodernism in economic geography; metaphor and the construction of alterity,"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10, No.1, pp.57-68; T. J. Barnes, 1992, "Reading the texts of theoretical economic geography; the role of physical and biological metaphors," in T. J. Barnes and M. R. Curry, eds.,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18-135.

96) T. J. Barnes and M. R. Curry, 1992, "Introduction: writing worlds," in *ibid.*, p.11. ; Buttimer는 지리학사를 메타포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한 바 있다. A. Buttimer, 1993, *Geography and the Human Spirit*, Baltimor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97) M. Foucault, 1980, "Questions on geography," in Foucault, op. cit., p.100.

98) J. Derrida, 1982, *Margins of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8.

또한 Baudrillard는 현대 및 미래사회를 '거리'의 공간에서 '접촉'의 공간으로의 변화라는 메타포를 사용해 그리고 있다.⁹⁹⁾

오늘날 시뮬라크르는 더 이상 본뜨거나 복제라는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곧장 발생학적인 극소화된 단계를 거친다. 재현이란 끝났고, 여기서도 역시, 어느 특정한 누구의 기억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는, 극소로 존재조차 하지 않는 어떤 기억 속으로 모든 공간이 합멸한다.

즉 지식, 정보, 권력으로 이 세상은 과도하게 가득차버려서 간격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 이 간격은 사회성의 존립 근거가 되는 분화를 통한 개인들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언어학에서 예기하는 재현대상(지시물)과 재현물(기호)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리학적인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공간적 변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개의 상실, 즉 면적인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두개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메타포는 단순히 학문적 혹은 일상적 언어를 보완하는 도구가 아니다. 포스트모던 문예이론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메타포와 수사학의 무한한 생산성이다. 과거에는 '사회는 책 혹은 시간이다'라는 메타포가 지배적이었던다면, 현재의 시대는 '사회는 공간이다.'라는 메타포의 시대인 것이다.

2) '談論(discourse)'으로서의 空間

Foucault는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스트 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지리학자들에게 환영을 받는 학자일 것이다.¹⁰⁰⁾ 왜냐하면 그는 매우 빈번하게 '공간'을 은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리학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다음의 글은 왜 그렇게 많은 지리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열광적으로 수용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¹⁰¹⁾

지정학의 거대한 전략에서부터 주거지의 작은 책략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의해 쓰여져야 할 어떤 전체적인 역사가 남아 있다. 그것은 동시에 권력들의 역사이다.

Foucault가 공간을 강조하고 그것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식-권력론이라고 불리우는 논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일차적인 분석단위는 담론¹⁰²⁾이다. 담론은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실천적 행위로 이해되는데, 그의 질문은 각 담론의 진리여부를 가늠하는 규칙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었다.¹⁰³⁾ 이것에 대한 Foucault의 대답은 권력이다. 다시 말해서 담론으로 구성되는 지식은 그 진위여부에 의해 평가된다기 보다는 권력관계에 의해 역학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Foucault에게 있어 역사연구는 이러한 지식이 권력 작용의 매개체로 어떻게 작동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¹⁰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독특한 권력 개

99) J. Baudrillard, 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Editions Galilee; 하태환 옮김, 1992, 「시뮬라시옹: 포스트모던 사회문화론」, 민음사, p.133.

100) 국내에서도 그의 사상은 비교적 일찍 소개되었다. 다음의 논문은 Foucault의 논의를 역사지리학과 연결시키고자 한 시도의 결과이다. 최병두, 1987, "역사, 권력, 공간: 미셸 푸코와 역사지리학," 「지리학논총」, 제14호, pp.119-140.

101) Foucault, *op. cit.*, p.147.

102) discourse는 언설, 언술, 언동, 담화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개념이 발언의 실천적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술행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지만 현재 담론으로 굳어진 상태이므로 이 번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03) M. Philp, 1985, "Michel Foucault," in Q. Skinner, ed., *The Return of Grand Theory in the Human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광래·신증섭·이종흠 옮김, 1987, 「현대사상의 대이동: 거대이론에의 복귀」, pp.99-100.

104)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그의 대표적인 저작은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이다. Driver는 이 저작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Foucault의 사상이 지리학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 바 있다. F.

념이다. 그에 의하면 권력이란,¹⁰⁵⁾

사회속에 유통되면서 하나의 사슬처럼 엮여 있는 그물망이다. 권력이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이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손아귀에 장악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상품이나 부처럼 독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권력은 오로지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섬세하게 퍼져 있는 그물망을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권력들(micropowers)'은 개인을 억압하는 거대한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conditions of beings)'이 되는 것이다.¹⁰⁶⁾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권력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권력의 역사는 권력들의 불연속적인 역사이며 단선적이고 진화적인 역사발전이라는 개념은 불신된다.¹⁰⁷⁾ 이러한 불신은 자연스럽게 역사(혹은 시간)에 대한 평가절하를 수반하고 공간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19세기의 거대한 강박관념은 역사였다. ...현재의 시대는 아마도 공간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동시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염원은 의심할 바 없이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궁극적으로 공간과 함께 해야만 한다. 아마도 시간은 요소들이 공간에 퍼져나가도록 해주는 다양한 배분적 작용들 중의 하나로서만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¹⁰⁸⁾

총체적 역사가 아닌 분절된 역사, 큰 역사가 아닌 국지적 역사들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편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의 전략은 역사를 공간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는 역사의 공간적 분화(spatial division of history)를 탐색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은 모든 형태의 사회생활에서 궁극적이다. 즉, 공간은 권력의 작동에 있어 궁극적인 것이다.¹⁰⁹⁾

사람들은 종종 내가 공간의 문제에만 빠져 있다고 비난한다. 사실 나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공간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원했던 것을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즉,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¹¹⁰⁾

그러므로 푸코의 작업은 권력의 복잡한 작동 속에서, 공간적 관계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세세한 경험적 분석이 된다. 권력이 내재된 역사적 과정이 실세계의 공간 속에서 작동하고 그것에 의해 형태지어지는 방식에 대한 연구, 즉 지리적 역사(geographical history)에 대한 연구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¹¹¹⁾ 이것은 '권력의 幾何學(geometry of power)'이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푸코를 '권력의 기하학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¹¹²⁾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은 권력의 작동을 형태지으면서 동시에 그것의 작동의 매개체가 된다

Driver, 1985. "Power, space and the body: a critical assessment of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3, No.3, pp.425-446.

105) Foucault, *op. cit.*, p.130.

106) Driver, *op. cit.*, p.425.

107) Hannah에 따르면, 그의 역사관은 반인간주의(antihumanism)와 불연속론(discontinuism)으로 특징 지워진다. M. Hannah, 1993. "Foucault on theoring specificity,"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11, No.3, p.351. : 이러한 공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푸코는 episteme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의 역사연구를 처음에는 考古學(archaeology)이라고 불렀다가 몇가지 입장 수정 후 니체에게서 따온 系譜學(genealogy)이라는 용어로 불렀다. 그의 고고학과 제보학에 대한 개념 규정은 「지식과 권력」의 제5장을 참고할 수 있다.

108) Foucault,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Vol.16, Spring, pp.22-23.

109) Foucault, 1984. "Space, knowledge, and the power," in P. Rabinow, ed., *The Foucault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p.252.

110) Foucault, 1980, *op. cit.*, p.100.

111) C. Philo, 1992. "Foucault's geography," *Environment & Planning D : Society & Space*, Vol.12, No.2, p.155.

112) *Ibid.*, p.152.

는 의미에서 하나의 담론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113)

3) 記票(signifier)로서의 空間

본 논자는 두가지 점에서 이 공간개념을 끌어내려고 한다. 첫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보편적 특성인 '저자의 죽음', 혹은 '반인간주의' 사상이고, 두번째는 Barthes의 텍스트론과 Lacan의 무의식 분석이다.

공간이란 '텍스트'의 저자는 누구인가? 조야한 실증주의 지리학자들은 그것을 기하학적 공리라고 믿고 있으며,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자들은 그것을 자본의 논리와 계급갈등이라고 믿고 있다. 경관을 창출하는 저자를 추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역으로 구체적 경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구동성으로 텍스트에서의 저자의 죽음을 이야기 한다. Barth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14)

이제 우리는 텍스트가 저자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단일한 「목적론적 의미」를 발산하는 낱말들의 선이 아니라, 어떤 기원도 소유하지 않는 다양한 글쓰기들이 용해되고 서로 부딪치는 다중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중적인 글쓰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며, 따라서 그 어떤 것도 해독되지 않는다. 텍스트의 구조는 스타킹의 실처럼 모든 점과 모든 수준에 걸쳐 전개되지만 그것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의 표면만 존재하지 심층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속에는 이런 다중성이 지양하는 하나의 초점이 되는 자리가 있는 바, 그것은 저자가 아니라 바로 독자의 자리이다. ...저자의 죽음을 댓가로 독자가 탄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Lacan은 Freud 이후 인간의식의 이면

에 있다고 가정되어 온 무의식을 환유작용에 의한 기표들의 연쇄로 파악함으로써 무의식을 기의 자리에서 기표의 자리로 끌어내린다. 115)

환유작용은 기표와 기표의 연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데, 이 끊임없는 기표의 연결 고리 속에서 대상은 스스로를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결핍만을 드러낸다. ...무의식은 기원이나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Barthes와 Lacan이 의미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물의 이면을 가정하기'에 대한 머뭇거림이다. 특히 Barthes의 텍스트론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여러개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읽는 독자에 의한 재창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공간에 적용시키게 되면, 연구자 앞에 펼쳐져 있는 공간 현상은 일면적인 원리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나는 원리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다양한 원리들의 상호교접의 양상을 포착하려는 시도(실재론이 보여주었던)에 의해 용이하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arnes와 Dunca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기표로서의 공간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116)

'텍스트'는 경관의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단어이다. 왜냐하면 경관은 의미의 고유한 유동성(instability), 분절(fragmentation) 혹은 완전성(integrity)의 부재, 권위적 통제 of 부족, 複數聲(polyvocality)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저자가 다수이며, 그것의 해석이 연구자에게 맡겨진다는 점은, 바로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상에서 발생한 위기를

113) 물론 이것은 Drive가 지적하듯이, 공간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전략들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간 조직을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Drive, *op. cit.*, p.426.

114) R. Barthes, 1977, "The death of author," in *Image-Music-Text*, New York: Hill and Wang; 이승훈 옮김, 1993, "저자의 죽음," 「현대시사상」, 겨울호, pp.68-70.

115) J. Lacan, 1977, "The agency of the letter in the unconscious or reason since Freud," *Écrits*; 민승기 옮김, 1994, "무의식에 있어 문자가 갖는 권위(주장) 또는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 권택영 역음, 「자크 라캉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p.77, p.85.

116) Barnes & Duncan, *op. cit.*, p.7.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이라는 텍스트의 저자는 자본도, 인간의 주관성도, 기하학도 아닌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저자들에 의해 함께, 그것도 소설처럼이 아니라 시처럼, 그리고 휘갈쳐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재현에 특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식론이란 없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적 특이성과 문화적 상대성을 현저하게 인정하는 일단의 연구들을¹¹⁷⁾ 자동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다. Foucault의 heterotopia¹¹⁸⁾, Zukin과 Shields의 閾의 공간(liminal space)¹¹⁹⁾ 등은 모두 이러한 공간의 텍스트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Jameson의 인지지도 그리기(cognitive mapping)의 요지도 공간의 재현상에서 발생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²⁰⁾

우리가 공간현상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 이면에 있을 권위적 실체를 가정하기를 멈추었을 때, 마침내 공간현상은 기표로서 작용하게 되며 영원한 기표들간의 유희속으로 몰입하게 된다. 공간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많은 지리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Olsson의 다음 글은 이러한 기표로서의 공간관을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다.¹²¹⁾

...그러므로 파괴되어야 할 것은 의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다른 모든 의미들에 대해 행사하는 명백한 지배(dominance)이다. 그러므로 세상(말)을 모욕하라. 그러면 그것이 침묵의 사회적

공간의 금기를 폭로할 것이다.

4. 포스트모더니즘의 痕跡들

포스트모더니즘의 지리학에의 도입은 많은 부분에서 오해되었음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항하는 또 다른 권위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게 던지는 집요한 질문들의 몽파쥬일 뿐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방법론을 위한 실체를 남겨주지 않는다. 단지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들만을 남겨줄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에 남기게 될 몇가지 흔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개념이 사회과학 전반에서는 유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예전에 비해 훨씬 대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많은 용어들이 공간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스트모던 운동이 공간을 사회이론에 개입시키려는 노력의 기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과학에서 거부되더라도 사회이론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은 증대될 것이다.

둘째,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주제가 '생산'에서 '문화'로 그 중심축이 변화될 것이다. 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자들이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자본이 문화의 영역마저 침범하려 한다는 점을 폭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문화에 인식론적 무게를

117) 이것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흐름이 인류학에서의 'ethnography'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다.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책이 중요하다. J. Clifford and G. E. Marcus,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18) Foucault, 1986. *op. cit.*

119) Zukin은 현대의 도시를 포스트모던적 閾(threshold의 의미)의 공간으로 개념규정하고, 이것을 자연과 인공, 공공적 사용과 사적 가치, 국제적 시장과 국지적 장소간을 미끄러지고 매개한다고 보고 있다. S. Zukin, 1988. "The postmodern debate over urban form," *Theory, Culture & Society*, Vol.5, No.2-3, pp.431-446; S. Zukin, 1992. "Postmodern urban landscapes: mapping culture and power," in S. Lash & J. Friedman, eds., *Modernity & Identity*, Oxford: Blackwell, pp.221-247; R. Shields, 1991.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f Modernity*, London: Routledge, p.83-101.

120) Jameson, *op. cit.*, p.192; 1988. "Cognitive mapping," in G. Nelson and L.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p.347-357. 이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R. Shields, 1992. "Social science and postmodern spatialisations; Jameson's aesthetic of cognitive mapping," in Doherty, *et. al.*, *op. cit.*, pp.39-56.

121) G. Olsson, 1987. "The social space of silence,"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5, No.3., p.252.

적게 둔 것에 대한 반성 혹은 좌절일 수도 있다. 하여튼 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주제에서 용이하게 화해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시각과 관련하여 도시경관연구가 활발한데, 그 예로서 Zukin, Short, Knox, Cooke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세째, 두번째의 것과 관련하여 신문화지리학의 탄생이 기대된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적 정초주의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의 문화지리이다. 이것의 발전에서 Geertz의 인류학이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것은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자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으며, 도시기호학과의 제휴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표적인 지리학자로는 Duncan, Ley, 그리고 Cosgrove가 있다.

네째, 주변적인 주제들의 부상이다. feminism, 환경문제, 제3세계지역과 관련된 관심이 급진전할 것이다. feminism에 대해서는 Bondi, Deutsche, Massey, McDowell 등의 연구가 있고, 제3세계연구로는 Forbes,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Bordessa, Cosgrove의 연구가 있다.

다섯째, 과학철학으로서 '실재론'의 위상강화를 예상할 수 있다. 정통 맑시스트 지리학자와 실증주의 지리학자 모두에게서 의심을 받았던 실재론이 반포스트모더니즘에 앞장섬으로써¹²²⁾ 모두의 모더니즘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됨으로써 지리학의 탐구 방식으로서 실재론이 가지는 위상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지리학적 저술의 글쓰기 양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학과 과학의 간극을 메우려는 포스트모던적 특성이 일부 수용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논문에서 사진이나 그림이 자주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일곱째, 소위 '국제화/국지화(Glocalization)'¹²³⁾라는 모순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동질성의 증대와 국지적 특이성의 심화라는 모순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사고와도 상통한다.

IV. 結 論

80년 후반 이후 지리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아직도 생경하기 이룰데 없는 괴물을 길들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노력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그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길들이고자 한 지리학자들이 아직도 너무 깊이 모더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오해는 결국 지리학자들로 하여금 재구성이라는 형이상학적이고 규범적인 길을 선택하게 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과 관련된 부분은 방기한 채, 모더니즘의 인식론으로 포스트모던 문화현상의 분석에 집중하는 새로운 경제결정론의 한 형태를 잉태하고 있기도 하다.

모더니즘 입장에서 가장 체계적인 포스트모던 지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되는 Sayer의 논지를 주목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출발점은 좋았으나 그 종착점은 좋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좋은 출발점에서 나쁜 종착점으로의 도약을 '포모 비약(pomo flip)'이라고 부르면서 세가지 종류의 포모 비약을 지적한다. 그것은 각각 정초주의에 대한 반대로부터 관념론으로의 비약, 거대 담론에 대한 반대로부터 국지적 지식으로의 비약, 남성중심주의와 제국주의에

122) Sayer, *op. cit.* 이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123) 이것은 지리학자 A. Mair가 만들어 낸 말로서, 경제적 국제화와 문화적 국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E. Swyngedouw, 1992. "The mammon quest. 'Glocalization', interspatial competetion and the monetary order: the construction of new scales," In M. Dunford and G. Kafkalas, 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London: Belhaven Press, pp.39-67.

대한 반대로부터 문화적 상대주의로의 비약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그가 지적한 세가지의 출발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Sayer가 옳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가 기대한 그런 종착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일 그가 그 출발점들에 선다면 결국은 그 종착점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Sayer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는 지향점이란 없다. 지향점 없는 끊임없는 성찰, 존재하는 지향점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입만이 있을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건'은,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에피스테메, 그리고 기획에 대한 끊임없는 개입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입이라는 '사건'은 재화해적이고 재구성적인 제3의 용어의 기대된 도래 앞의 휴식인 것으로, 변증법적으로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¹²⁴⁾

결론적으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리학을 해체하지도 재구성하지도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열광적인 찬반의 토론은 곧 시들해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마치 유행처럼 사라져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열광적인

논쟁의 시작도, 그리고 그 허탈한 논쟁의 종말도 모두 모더니스트와 몇몇의 저널리스트에 의한 가상드라마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가 지리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성찰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항상 등장할 자신을 향한 궁극적인 질문들인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파장은 지리학에 몇가지 결과들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지리학에 그렇게 나쁘지 않으리라고 본다. Dear가 바라는 만큼 포스트모더니즘의 결과들이 지리학을 인문사회과학의 핵심적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리학의 인식 지평을 이전의 어떤 논의보다도 훨씬 더 넓혀 놓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Huyssen의 다음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음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¹²⁵⁾

그러한 거부는 모더니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편협한 교의 속에서 법전화되어 온 모더니즘 내의 그러한 경향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야기는 두더지와 토끼 이야기와 같다. 항상 두더지는 한마리 이상 있었기 때문에 토끼는 승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토끼는 여전히 더 훌륭한 주자였다.

124) Doel, *op. cit.*, p.176.

125) Huyssen, *op. cit.*, p.326

Postmodernism into Geography: Deconstructing or Reconstructing?

Sang-il Lee*

Since early 1980s, postmodernism has struck on social science.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postmodernism into social science, there have been many confusions. Some represent the term as a superstructural response to specific economic shift from fordism to postfordism, others as a new artistic style, others as a new cultural mode enjoyed by emerging new middle class, and others as neo-Nietzschean epistemology of French philosophy. I suggest that postmodernism should be a kind of world-view containing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properties.

Postmodernism is the continu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discontinuation of modernism. Postmodernism is the everlasting questioning forward and interrupting into modernism. Postmodernistic epistemological proper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 suspicion of dialectics as a logic of thought and history development process
- (2) a suspicion of hermeneutics as symptomatic reading
- (3) a suspicion of foundationalism as a philosophy of science

Introduction of postmodernism into geography has also generated many confusions. Many modernistic geographers have wondered whether postmodernism may deconstruct or reconstruct geography. As a result, some of geographers concerning with postmodern geography easily entered into the reconstruction scheme. Others stucked to the analysis of postmodern culture in terms of more or less economic deterministic scheme, neglecting postmodernistic epistemology.

I suggest that postmodernism aim neither at deconstructing nor at reconstructing geography and that postmodernism should be understood as attitude of 'doing geography' by means of postmodernistic epistemology. But it doesn't mean that postmodernism has only epistemological implications for geography. I proposed three kinds of conception for space as postmodernistic ontology. Those are respectively (1) space as a metaphor, (2) space as a discourse, (3) space as a signifier.

Postmodernism will leave some traces on geography and then may disappear soon. But at any moment we stop reflecting ourselves during 'doing geography', it will re-appear to ourselves.

Key words: Postmodernism, Deconstruction, Reconstruction, Interruption, Space